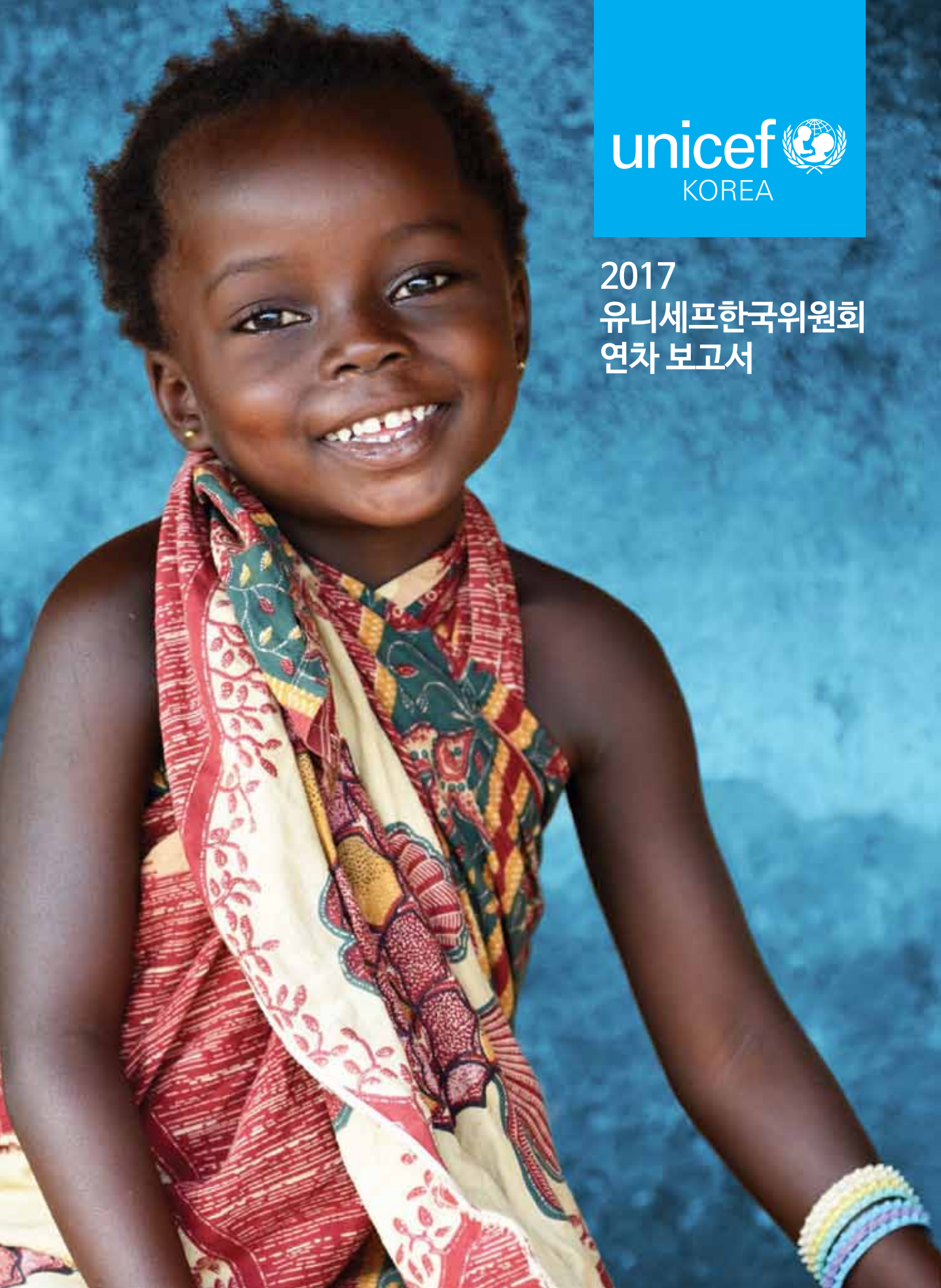




201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연차 보고서





## 모든 어린이를 위해, 유니세프

유니세프는 1946년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으로  
지구촌 어린이를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피해국 어린이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 190개 나라 및 영토에서 활동합니다.

70년이 넘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위험하고 소외된 곳의 어린이를 위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단 한 명의 어린이도 빠짐없이,  
모든 어린이가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건 · 영양 · 식수와 위생 · 교육 ·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펼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린이들의 곁을 지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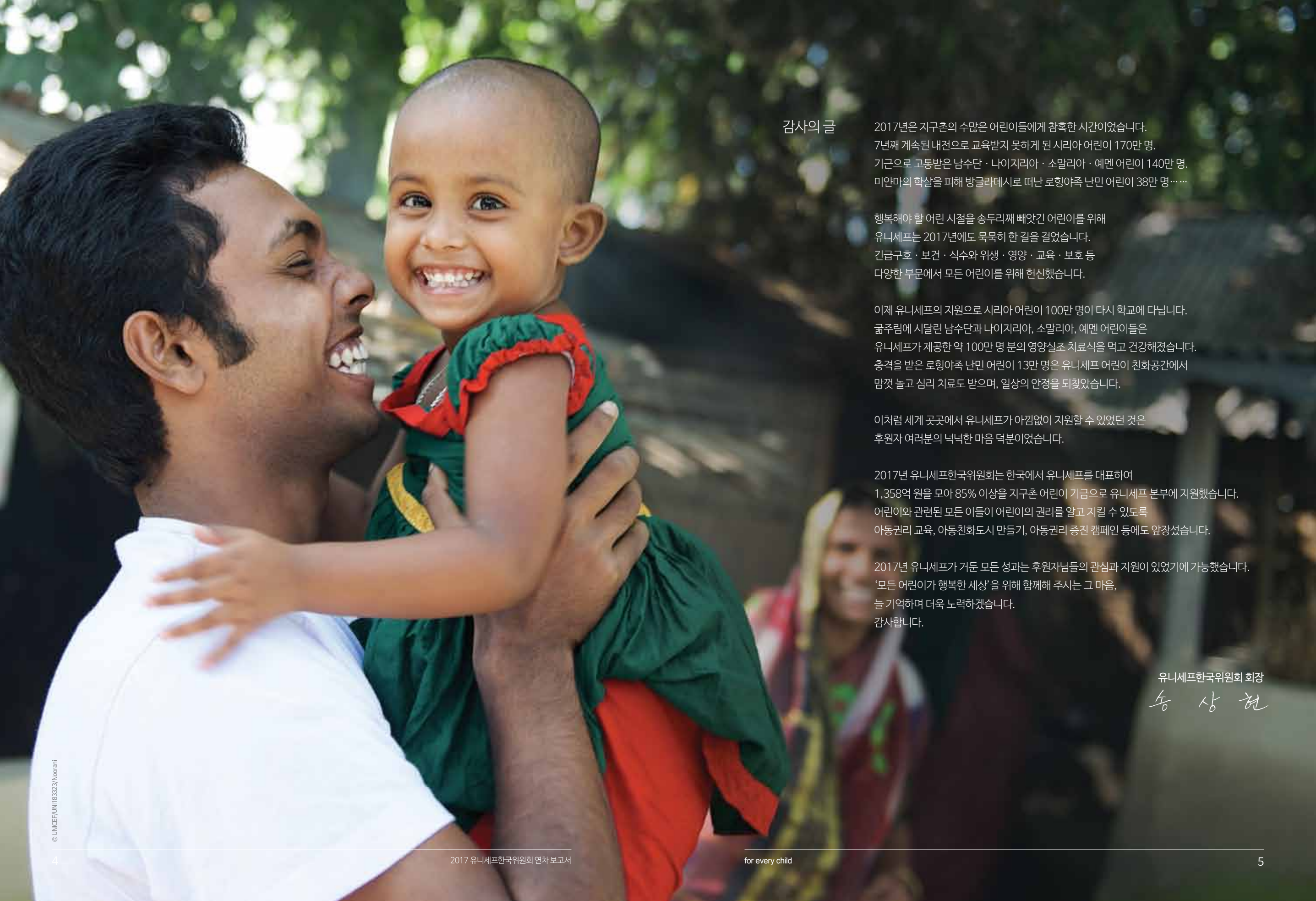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하여  
유니세프의 이념을 실현합니다.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기금을 모으고  
어린이 권리를 옹호합니다.

unicef

### 목차

- 4 감사의 글
- 6 유니세프 활동 지역  
세계 곳곳마다 유니세프
- 8 한국과 유니세프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주는 나라로
- 10 재정 보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재정 보고  
유니세프 본부 재정 보고
- 16 어린이의 삶을 바꾼 유니세프 중점 사업 성과  
긴급구호  
보건  
에이즈 퇴치  
식수와 위생  
영양  
교육  
보호  
사회 통합
- 36 한국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40 우리는 유니세프 가족  
후원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친선대사와 특별대표  
2017 주요 후원 기업 및 단체  
자원봉사자





## 감사의 글

2017년은 지구촌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7년째 계속된 내전으로 교육받지 못하게 된 시리아 어린이 170만 명.  
기근으로 고통받은 남수단 · 나이지리아 · 소말리아 · 예멘 어린이 140만 명.  
미얀마의 학살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떠난 로힝야족 난민 어린이 38만 명……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긴 어린이를 위해  
유니세프는 2017년에도 묵묵히 한 길을 걸었습니다.  
긴급구호 · 보건 · 식수와 위생 · 영양 · 교육 · 보호 등  
다양한 부문에서 모든 어린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제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시리아 어린이 100만 명이 다시 학교에 다닙니다.  
굶주림에 시달린 남수단과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예멘 어린이들은  
유니세프가 제공한 약 100만 명 분의 영양실조 치료식을 먹고 건강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로힝야족 난민 어린이 13만 명은 유니세프 어린이 친화공간에서  
맘껏 놀고 심리 치료도 받으며, 일상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유니세프가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2017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하여  
1,358억 원을 모아 85% 이상을 지구촌 어린이 기금으로 유니세프 본부에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어린이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아동권리 교육,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아동권리 증진 캠페인 등에도 앞장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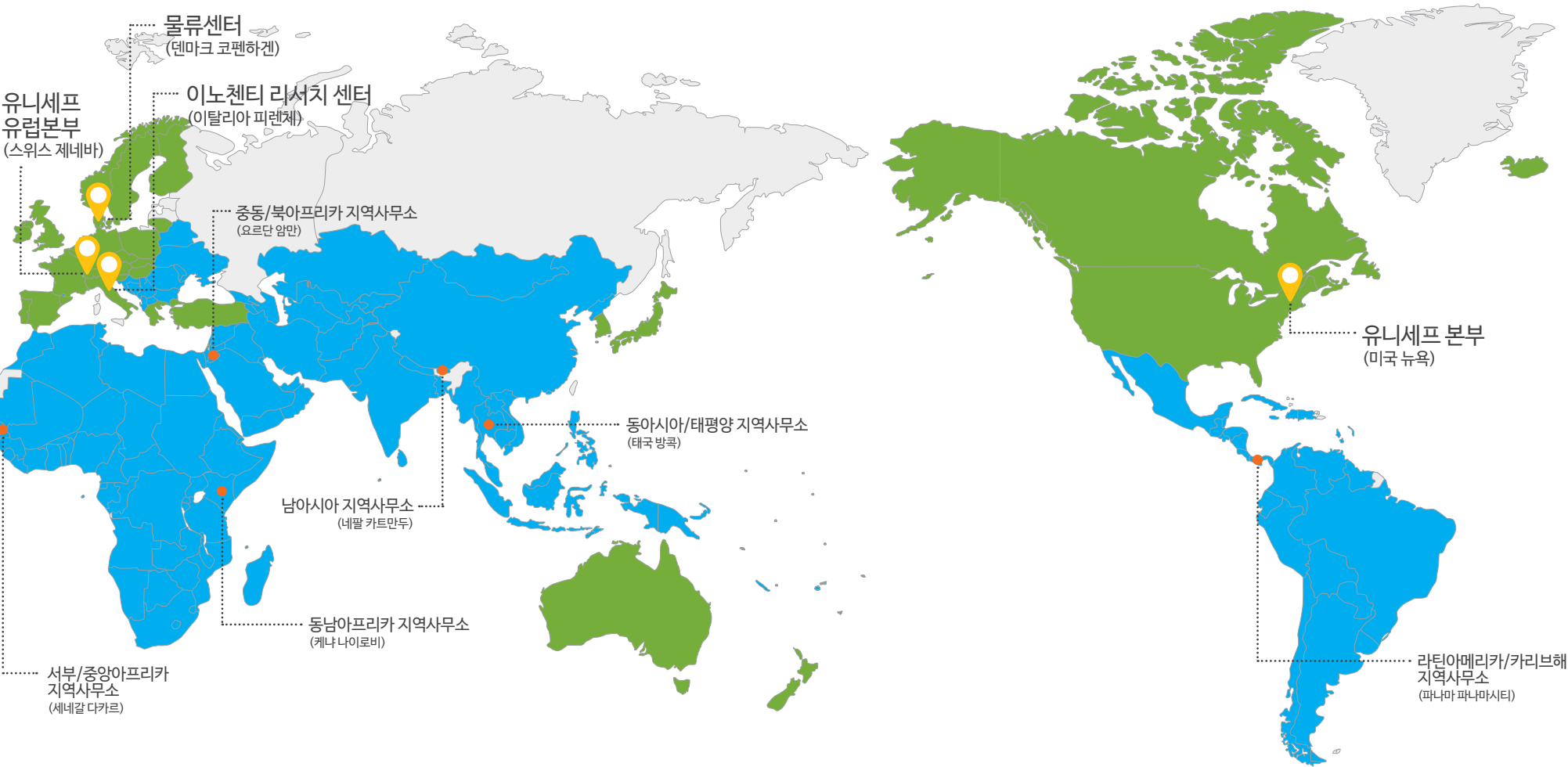
2017년 유니세프가 거둔 모든 성과는 후원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그 마음,  
늘 기억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송 상 현

# 유니세프 활동 지역

세계 곳곳마다 유니세프



유니세프는 **190개** 나라 및 영토에서 모든 어린이들, 특히 가장 소외된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일합니다.

## 도움주는 34개 유니세프 국가위원회는

그 나라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하여 전 세계 어린이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니세프 활동을 널리 알려 기금을 모금하고 어린이 권리를 옹호합니다.

34개 유니세프 국가위원회가 유니세프 본부에 보낸 기금은 각 나라의 경제 수준과 어린이 상황을 고려하여 156개 개발도상국 유니세프 국가사무소에 분배됩니다.

## 도움받는 156개 유니세프 국가사무소는

전 세계 어린이의 보건·영양·식수와 위생·교육·보호·긴급구호 사업을 펼칩니다.

유니세프 본부는 국가위원회와 국가사무소의 활동을 함께 기획하며, 추진 과정 및 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합니다.

### 유니세프 국가위원회(34개)

그리스	아이슬란드	한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헝가리
노르웨이	안도라	호주
뉴질랜드	영국	홍콩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일본	
미국	체코	
벨기에	캐나다	
스웨덴	터키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핀란드	

### 유니세프 국가사무소(156개)

<b>중서부 아프리카(24)</b>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아 베냉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b>세네갈</b> 시에라리온 적도 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 토고	<b>남수단</b>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브룬디 소말리아 스와질란드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b>잠비아</b> 짐바브웨 케냐 코모로 탄자니아	<b>중동 &amp; 북아프리카(20)</b>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b>아랍에미리트</b>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지부티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b>유럽 &amp; 중앙아시아(20)</b>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b>조지아</b>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b>동아시아 &amp; 태평양(27)</b> 나우루 니우에 동티모르 라오스 마셜 제도	<b>말레이시아</b> 몽골 미크로네시아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북한 사모아 솔로몬 제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룩 아일랜드 키리바시 태국	<b>토켈라우</b>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b>남아시아(8)</b>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b>인도</b> 파키스탄	<b>남미 &amp; 카리브해 (36)</b>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몬트세랫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b>벨리즈</b>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앵귈라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령버진 제도 온두라스	<b>우루과이</b>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	---	---	---	---	---	---	---	---	--	--	--	-------------------	--	--	--



# 한국과 유니세프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주는 나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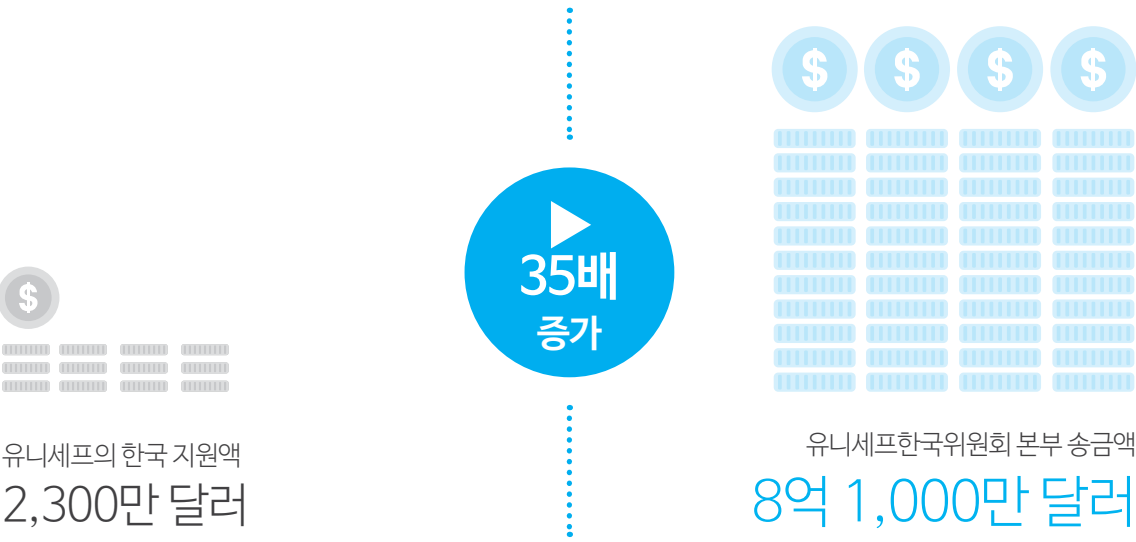
한국은 유니세프 역사에 있어 2개의 특별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제 사회는 한국이 유니세프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유니세프로부터 도움받던 나라가  
도움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유니세프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한국 어린이에게 우유와 담요, 의약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대량 제공했습니다. 이후 43년간 놓여  
온 어린이 영양 개선, 저소득층 유아교육 등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한국 어린이를 돕던 주한 유니세프 대표부가  
1993년 철수하고 유니세프의 선진국형 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1994년 설립되었습니다.

유니세프로부터 도움 받던 한국	도움 주는 한국
------------------	----------

1950년 ..... 1993년 ..... 1994년 ..... 2017년  
주한 유니세프 대표부 철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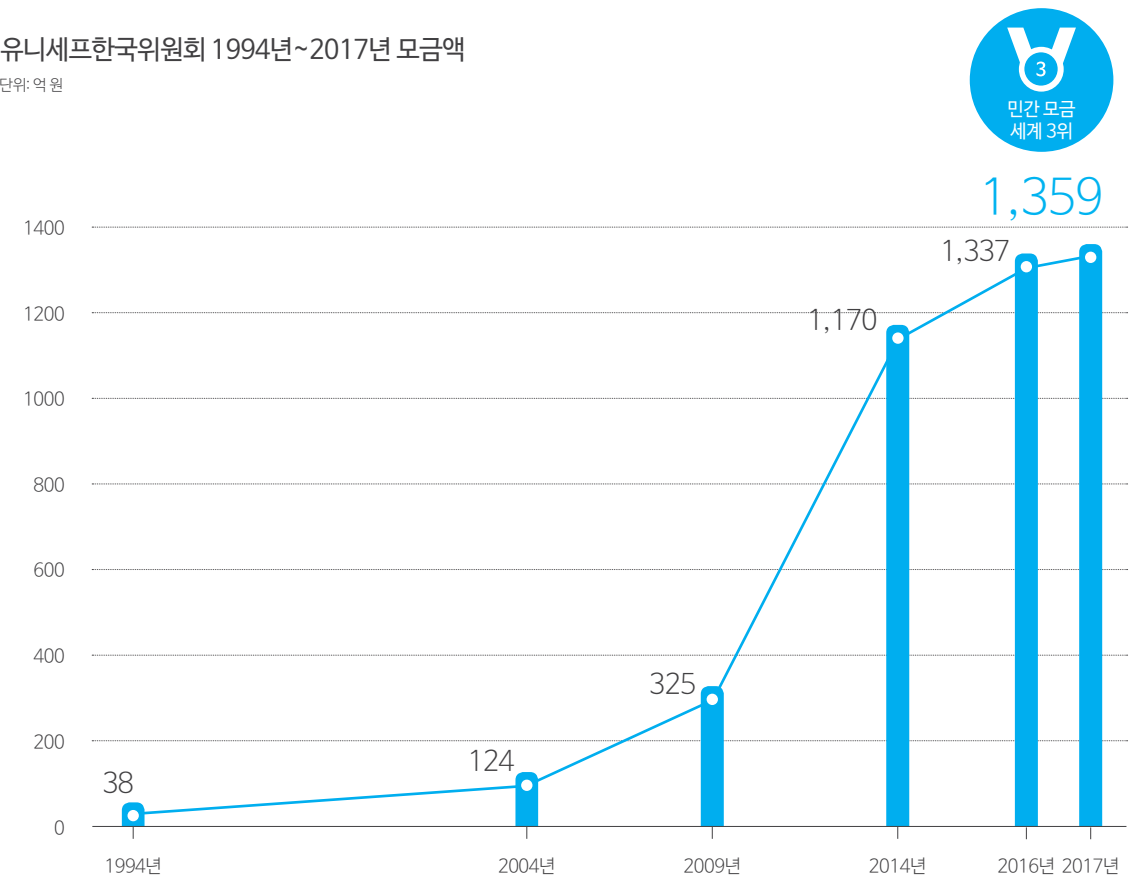


둘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설립 이후 21년 만에  
민간 유니세프 기금 규모가 세계 3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4년 설립 첫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모금액은 38억 원(약 350만 달러)이었습니다. 기부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확산되지 않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후 끊임없이 발전하여 2015년부터 선진국 국가위원회 34개 중 본부에 보내는 기금 송금 규모가  
세 번째에 이르는 기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994년~2017년 모금액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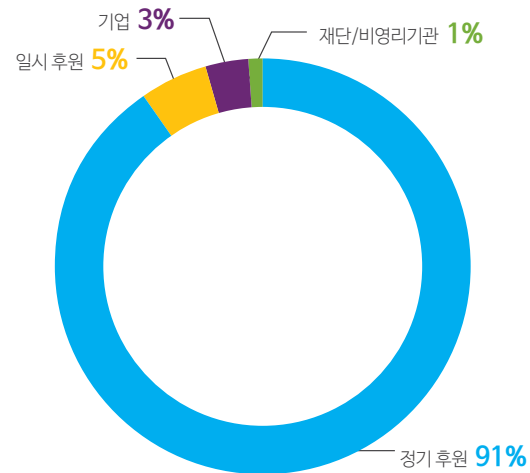


# 재정 보고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재정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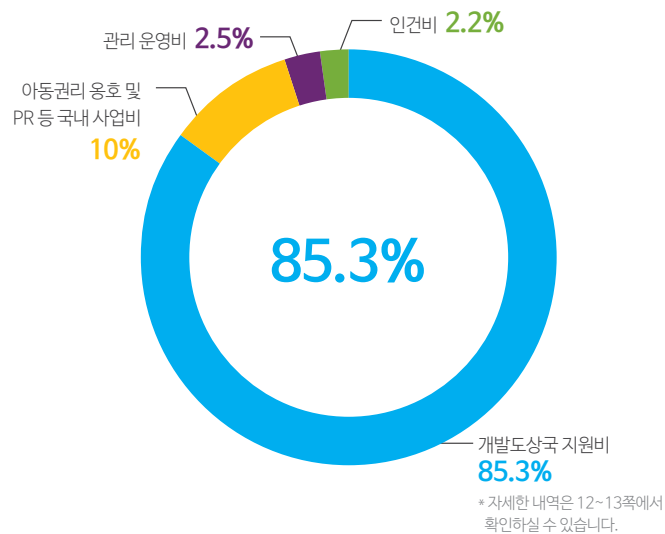
최고 수준의  
효율성 · 투명성

### 201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금 수입



총 135,896,681,638원	
정기 후원	122,996,575,338 원
일시 후원	7,110,685,603원
기업	4,448,224,993원
재단/비영리기관	1,341,195,704원

### 201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금 지출



총 135,896,681,638원	
개발도상국 지원비	115,886,339,724원
아동권리 옹호 및 PR 등 국내 사업비	13,628,248,034원
관리 운영비	3,397,098,616원
인건비	2,984,995,264원

2017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약 1,359억 원을 모금해 약 1,159억 원을 유니세프 본부에 개발도상국 어린이 지원금으로 송금했습니다. 여러분이 100원을 기부하시면 이 중 85원이 송금된 셈입니다. 나머지 15원 중 2원은 인건비로 사용되고, 3원은 관리 운영비, 10원은 아동권리 옹호 및 PR 등 국내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송금률은 도움을 주는 34개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중 가장 높으며, 국내 구호단체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합니다.

### 2017 유니세프국가위원회 기부금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기부금				
1	미국	338	11	스위스	25
2	일본	132	12	덴마크	23
3	한국	109	13	핀란드	22
4	독일	96	14	홍콩	20
5	스웨덴	86	15	캐나다	16
6	영국	75	16	벨기에	16
7	스페인	73	17	노르웨이	15
8	프랑스	67	18	호주	12
9	네덜란드	58	19	아일랜드	8
10	이탈리아	40	20	폴란드	8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내부 감사, 유니세프 본부 및 외부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소중한 후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검증받습니다. 또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에 따라 매년 국세청에 결산 서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 웹사이트에 공시합니다. 후원금 외 수입 · 지출을 포함한 자세한 결산 내역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보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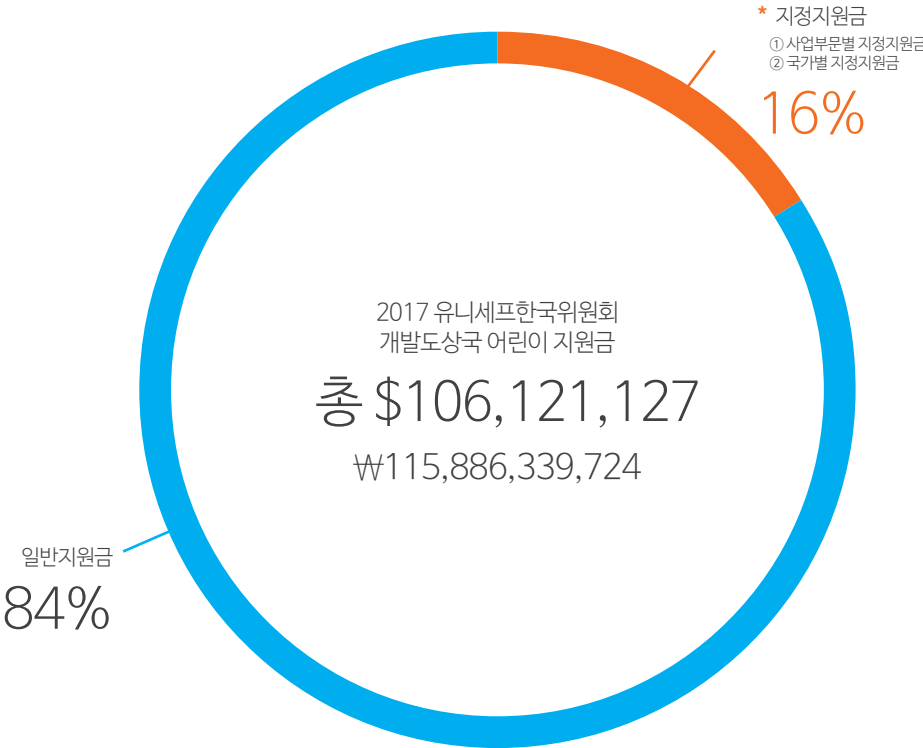


국세청  
웹사이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재정 보고

201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개발도상국 어린이 지원금

개발도상국 어린이 지원금은 일반지원금(84%)과 지정지원금(16%)으로 나뉩니다. 이 중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지원 대상국과 사업을 지정해서 보내는 지정지원금은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동 2개국, 유럽 1개국, 에이즈 퇴치, 아시아 어린이 교육 (Schools for Asia), 아동폭력 근절 (#ENDviolence) 사업에 쓰였습니다.



일반지원금  
\$89,261,405

전 세계 156개 개발도상국 어린이  
보건, 영양, 식수 및 위생, 교육, 보호 등 지원

지정지원금  
\$16,859,722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지원대상국 및 사업을 지정해서 지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4분기에 모금한 후원금은 결산 후 이듬해 1분기에 유니세프 본부에 송금됩니다.  
따라서 유니세프 본부가 집계한 201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기부금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2017년 후원금 중 본부에 보낸 송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① 사업 부문별 지정지원금



에이즈 퇴치

\$7,313,490



아시아 어린이 교육  
Schools for Asia

\$904,749



아동폭력 근절  
#ENDviolence

\$478,918

② 국가별 지정지원금



아시아		\$4,922,113
북한	보건	3,000,000
몽골	교육, 식수 · 위생	536,178
베트남	교육	442,580
동티모르	교육	303,588
방글라데시	교육	300,000
라오스	식수 · 위생	250,000
중국	교육	89,767

아프리카		\$2,340,452
남수단	영양, 보건	446,546
시에라리온	교육, 보건, 보호	393,906
중앙 아프리카공화국	보건	300,000
소말리아	보건	300,000
감비아	교육	300,000
카메룬	보건	300,000
차드	교육	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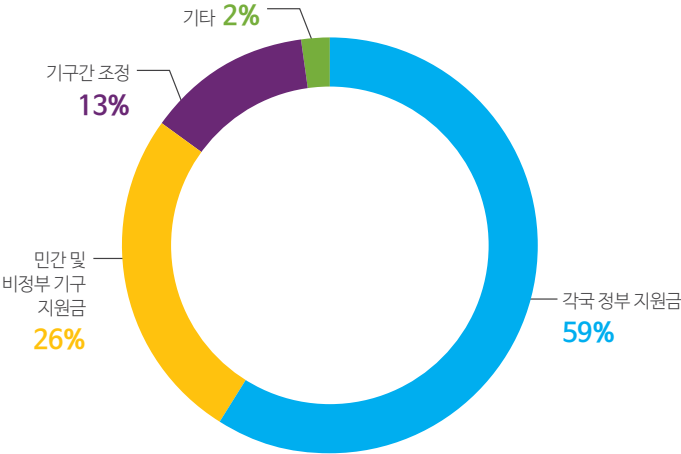
중동		\$700,000
시리아	보건	400,000
이란	교육, 보건, 보호	300,000
유럽		\$200,000
세르비아	보호	200,000

유니세프 본부 재정 보고

유니세프는 자발적인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더 많은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7년 전체 지출액 58억 3천 5백만 달러 중 91% 수준인 52억 9천 7백만 달러를 어린이를 구호하는 데 직접 사용했습니다.

출처: UNICEF Annual Report 2017

2017 유니세프 본부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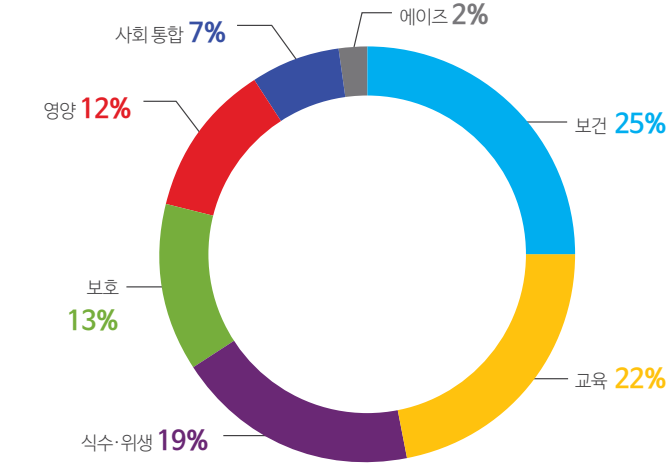


총 65억 7,700만 달러

각국 정부 지원금	3,870
민간 및 비정부 기구 지원금	1,710
기타(이자 수익, 조달품 등)	859
기타(이자 수익, 조달품 등)	138

단위: 백만 달러

2017 유니세프 본부 사업 부문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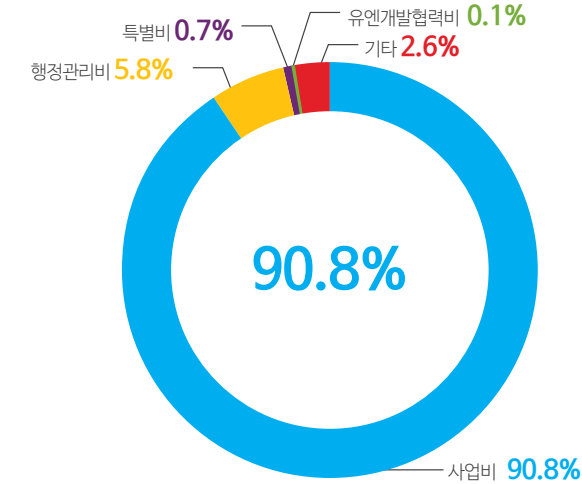
총 54억 4,900만 달러

보건	1,375
교육	1,203
식수·위생	1,019
보호	690
영양	665
사회 통합	413
에이즈	84

단위: 백만 달러

\* 긴급구호 관련 지출액은 각 부문별 지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 유니세프 본부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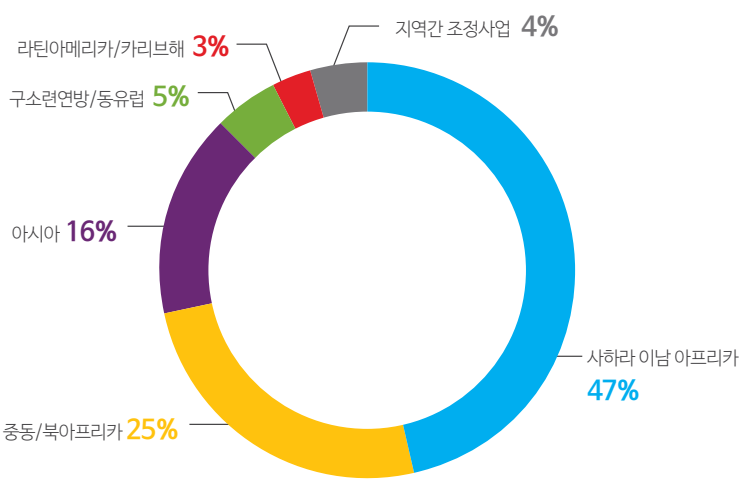
총 58억 3,500만 달러

사업비	5,297
행정관리비	337
* 특별비	40
* 유엔개발협력비	7
* 기타	155

단위: 백만 달러

\* 특별비: 보안, 기술, 자본, 정보 통신 투자비  
\* 유엔개발협력비: UN 산하 기구 및 타 국제기구와 협력 시 발생 비용  
\* 기타: 각 국가위원회의 모금 및 아동 권리 증진 활동을 돕는 투자비, 구호 물품 조달비 등

2017 유니세프 본부 지역별 지출



총 54억 4,900만 달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539
중동/북아프리카	1,367
아시아	865
구소련연방/동유럽	275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173
지역간 조정사업	228

단위: 백만 달러

유니세프 지출예산은 당해년도 회기 1~2년 전에 집행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당해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발생하며, 당해년도 차액은 다음 해의 프로그램 예산에 반영됩니다. 각 구분 금액의 합은 반올림에 의해 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어린이의 삶을 바꾼 유니세프 중점 사업 성과

유니세프는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전 세계 어린이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어린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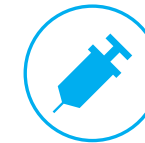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구촌이 함께 달성하기로 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염두에 두고, 유니세프는 2017년 한 해 동안 긴급구호·보건·에이즈 퇴치·식수와 위생·영양·교육·보호·사회통합에 이르는 중점 사업을 펼쳤습니다.

## 유니세프 중점 사업



### 긴급구호

유니세프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무소와 글로벌 물류 시스템을 통해 긴급구호에 48 시간 내에 대응합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염두에 두고 긴급구호 사업을 펼칩니다.



### 보건

예방접종, 모성 및 신생아 보건 지원, 말라리아 예방 등 기초 보건서비스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지킵니다.



### 에이즈 퇴치

HIV/AIDS 치료제 공급과 예방교육으로 HIV/AIDS 퇴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 식수와 위생

우물 및 펌프 설치, 식수정화제 및 위생 키트 공급, 위생교육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듭니다.



### 영양

영양실조 치료, 필수 미량영양소 공급, 성장 조사 등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지킵니다.



### 교육

학용품 및 교재 제공, 학교 환경 개선, 교사 연수, 교육 과정 개발 등으로 어린이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 보호

아동폭력 및 아동노동 근절, 소년병 해산, 조혼 및 할례 철폐, 출생 신고 지원 등 어린이 보호 활동을 적극 펼칩니다.



### 사회통합

아동친화적인 법과 정책을 촉구해 모든 어린이, 특히 소외된 어린이의 권리를 증진합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긴급구호



© UNICEF/UN048906/Anmar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 덕분에  
따뜻한 담요와 옷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은 이라크 모술에 살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은 이라크 하산샤 캠프에 살아요.  
잠을 떠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해서,  
추운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유니세프에서 주는 따뜻한 담요와 옷, 신발을 받았거든요.  
후원금을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니세프는 난민캠프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Warm for Winter)”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나이지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등에서 고조된 분쟁으로 인도주의적 구호가 시급한 어린이와 젊은이의 수가 약 3억 5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로 고향을 떠난 어린이들은 폭력과 착취, 영양실조, 질병 등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유니세프는 구호가 가장 시급한 어린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순 생필품만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어린이와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구호사업을 펼쳤습니다.



102개 나라  
337개 긴급구호  
지역 지원



긴급구호 지역 주민  
3,300만 명에게  
안전한 식수 제공



긴급구호 지역  
어린이 880만 명에게  
기초교육 제공



내전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잃은 시리아  
어린이 100여만 명에게  
교육 서비스 제공



남수단 난민 25만 명  
거주 지역에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식수 공급  
시설 설치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어린이 및 청소년  
약 13만 명에게  
심리치료 서비스 및  
아동친화공간 제공



혹독한 가뭄을 겪은  
동남 아프리카 13개  
나라에 식수 및  
위생시설 설치 등



허리케인으로 가족과  
헤어진 아이티 어린이  
4,700명 보호 및  
부모와 재결합 지원

### (주)엔엑스씨 시리아 난민 어린이 돕기 캠페인

(주)엔엑스씨는 ‘넥슨문화다양성펀드’가 수입한 다큐멘터리 ‘시리아의 비가(悲歌): 들리지 않는 노래(Cries from Syria)’ 시사회와 시네마토크를 2017년 11월 13일 개최하고, 시리아 난민 어린이를 위해 10만 달러 및 영화 수익금 전액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했습니다.

아울러 2017년 11월 넥슨컴퓨터박물관에서 시리아 난민 어린이의 상황을 체험하는 행사 ‘우리 목소리가 들리나요?’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열었습니다.







## 보건

여러분 덕분에  
아픈 동생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막내 동생 다닐로는 '지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머리가 유난히 작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병원에 다니며  
형들과 잘 지낼 수 있어서 기뻐요.

유니세프는 과테말라 보건부와 협력하여  
장애 어린이를 위해 보건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지카 바이러스로 소두증인 어린이들도  
전문 기관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어린이를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2017년 유니세프는 어린이의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기초 보건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2017년 세계예방접종주간인 4월 마지막 주를 맞아, 질병 예방효과가 입증된 안전한 백신을 점검하는 범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백신 운송 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의 설사와 폐렴을 예방하는 새로운 백신을 기존 예방접종 체계에 포함하기 위한 활동도 펼쳤습니다.



백신 약 24억 4천만 회  
접종 분량 공급  
(세계 최대 백신 구매 기관)



아프리카 어린이  
1억 4천만 명에게  
소아마비 백신 제공



긴급구호 지역 어린이와  
여성 약 1,500만 명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내전으로 고통받는 시리아  
어린이 480만 명에게  
홍역 예방접종



28개 나라  
콜레라 대비  
전략 수립 지원 등



29개 나라에  
살충 처리 모기장  
2,090만 개 제공



백신 흡입기  
7억 4,760만 개 제공



신생아용 폐렴약  
3,670만 정 제공



말라리아 치료제  
1,810만 정 제공



신생아 사망률과 사산율을  
줄이기 위해 44개 나라 및  
지역 정부와 협력



아기 2,500만여 명이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있는 의료센터에서 태어나도록 지원  
· 100개 나라 산모와 출생아 80%에게 숙련된 의료진 보장

### 북한 어린이를 건강하게

유니세프는 설사와 폐렴 등으로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를 위해 보건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 약 30만 명에게 설사 약을, 5세 미만 어린이 약 160만 명에게 비타민 A를 제공했습니다. 홍역 예방 주사를 어린이 약 29만 명에게 접종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북한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2017년 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 에이즈 퇴치

© UNICEF/UN063429/Schmbrucker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다니  
정말 기뻐요

제가 HIV 보균자라 걱정했는데 여섯 살 큰 아이와  
세 살된 둘째 모두 HIV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어요.  
친척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유니세프 덕분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유니세프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의  
모자간 수직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HIV 감염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알맞은 약을 처방하며, 상담도 진행합니다.

한 시간마다 어린이 18명이 추가로 HIV에 감염됩니다. 어린이가 HIV에 감염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임신 중인 어머니로부터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모자감염입니다. 0세부터 14세까지 HIV 감염 어린이 210만 명 중 57%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이에 유니세프는 모자감염 예방과 조기 치료에 중점을 두고 에이즈 퇴치 사업을 펼칩니다. 유니세프는 2030년까지 에이즈 퇴치를 목표로 2017년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에이즈 진단 키트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했습니다. HIV 감염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알맞은 약을 처방하며,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2010년 이래  
어린이 160만 명을  
HIV 감염으로부터 보호



HIV감염자에 대한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 비율이  
가장 낮은 서부와  
중앙 아프리카 지역 집중 지원



유엔에이즈계획  
(UNAIDS)과 협력하여  
35개 나라 10대 청소년  
HIV 감염 및 치료 현황 파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HIV 감염 임산부 80%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공급



중증 영양실조가 동반된  
말라위의 HIV 감염  
어린이 90%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시작



긴급구호 지역  
어린이 4만 명과  
임산부 4만 6천 명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보급



HIV 신속 진단 테스트기  
515만 개

### 에이즈 퇴치 지원금

에이즈 퇴치를 위해 정기후원하시는 한국 후원자들의 참여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전 세계 전문기관과 정부,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중 가장 많은 에이즈 퇴치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 에이즈 퇴치 기금 총 \$44,000,000 중 22%)

순위	기금액
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9,672,050
2	글로벌 펀드 7,759,639
3	유엔에이즈계획 6,115,374
4	미국 2,777,332
5	네덜란드 2,322,880
6	노르웨이 1,666,911
7	유니세프홍콩위원회 1,168,304
8	유니세프프랑스위원회 1,099,821
9	얼라이언스 코트디부아르 1,075,082
10	스웨덴 886,485

단위: 달러

출처: UNICEF Annual Results Report 2017 / HIV and AIDS





## 식수와 위생

### 가물에도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너무 가물어서 마실 물을 구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유니세프 식수 탱크 덕분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2016년 시작된 극심한 가뭄으로 2017년 4월 현재  
소말리아에서는 620만 명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450만 명이 식수와 위생시설이 없어 고통받았습니다.  
물을 찾아 고향을 떠난 사람도 5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유니세프는 소말리아 갈카요 캠프에  
식수 탱크와 위생시설을 제공했습니다.

22억 명이 여전히 안전한 식수를 마시지 못합니다. 세계 인구의 61%는 화장실 없이 살아갑니다.

2017년 유니세프는 물 부족과 오염된 물, 열악한 위생환경 때문에 건강과 교육 기회 등을 위협받는 어린이를 위해,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에게 식수 및 위생 시설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손 씻기 등 위생교육도 실시했습니다.



4,500만 명에게  
안전한 식수,  
급수시설 제공



2,200만 명에게  
개선된  
화장실 제공



각 나라 정부가 식수와  
위생 관련 기후변화  
대책을 국가정책 및  
긴급상황 대비 계획 등에  
통합하도록 함



44개 나라 학교에서  
손 씻기와 생리 위생 등  
위생교육 실시



위생교육과 화장실 설치로  
5만 개 마을의  
노상배변 근절

### 위닉스 해피워터릴레이

생활가전 기업 위닉스는 오염된 물과 가뭄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나라 어린이에게 깨끗한 물을 기부하는 '해피워터 릴레이'를 2017년 6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진행했습니다. '해피워터릴레이'는 위닉스 공식 페이스북 해당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인스타그램에 물 기부 응원 메시지를 올리거나 공유하는 고객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약 5개월 간 약 28만 명이 '해피워터릴레이'에 참여하여, 물 5,600만 리터를 지원했습니다.







## 영양



## 잘 먹고 튼튼해졌어요

먹을 게 없어서 말랐었는데,  
유니세프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튼튼해졌어요.

시리아에는 7년간 계속된 분쟁으로 식량이 부족해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가 많습니다. 영양 상태를 측정하는 테이프를 팔뚝에 둘러 11.5cm 이하인 빨간색 범위에 속하면 중증 영양실조, 11.5cm에서 12.5cm 사이 노란색이면 경증 영양실조, 12.5cm 이상 초록색에 속하면 정상입니다. 유니세프는 성장 상태를 조사하고, 영양실조 치료식과 복합미량 영양소 등을 제공해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약 5천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위기에 있으며, 약 1억 5천만 명은 영양 부족이나 발육 부진을 겪습니다.

2017년 유니세프는 어린이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 모유수유를 지원하고 영양실조 치료식과 보충식·필수 미량 영양소를 제공했습니다. 각 나라의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해 어린이 성장 상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120개 나라에서  
영양실조 예방과 치료



58개 나라에서  
비타민 A캡슐  
5억 5,300만 개 공급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  
4백만 명 이상 치료  
(2014년, 270만 명 치료)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 있는  
중증 영양실조 상태 로HINGA  
난민 어린이 4,000명 중  
95%에게 치료 지원



영유아 발달을 위한  
영양과 놀이, 돌봄을  
강조한 글로벌 캠페인  
(#EatPlayLove) 추진



56개 나라에서  
10대 소녀 대상 빈혈  
퇴치 프로그램 진행  
(2016년, 41개 나라)

### YG 유니세프 워킹 페스티벌

YG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5월 14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2017 YG 유니세프 워킹 페스티벌을 삼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고, 참가비 전액을 지구촌 어린이의 영양 사업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참가자 5,000여 명은 4km 코스를 완주한 후, 방승인 오상진과 안영미의 사회로 진행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지누션, 에픽하이, 이하이, 악동뮤지션, 위너, 아이콘, 블랙핑크의 콘서트를 관람하며 건강하고 재미있는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빅뱅의 2012년 월드투어 수익금 기부와 2016년 빅뱅 데뷔 10주년 기념기부, 2015년 네팔 긴급구호 기금 기부 등으로 지구촌 어린이에게 꾸준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 YG x UNICEF WALKING FESTIVAL







## 교육

© UNICEF/UN0216606/Sokol

친구들과  
다시 배우고  
놀 수 있어서 신나요

미얀마에서 충돌 든 무서운 사람들이  
로힝야족을 해쳤어요.  
경든 고향과 학교를 떠나  
방글라데시로 와서 힘들지만  
유니세프 교육센터에서  
친구들이랑 다시 공부하고 신나게 놀아요.

2017년 12월 기준 로힝야 난민 약 65만 명 가운데  
58%가 어린이입니다.  
유니세프는 로힝야 어린이가 계속 배우며  
어린이답게 지낼 수 있도록  
난민 캠프에 교육센터를 마련해 운영합니다.

전 세계 미취학 어린이의 절반은 영유아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매우 가난한 가정 어린이 중 79%가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지만, 장애 어린이, 오지에 사는 어린이, 분쟁 지역 어린이, 여자 어린이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2017년 유니세프는 7~14세 어린이의 문자 해독력과 산술능력을 표준가구조사에 포함시켜 각 나라가 교육 불평등 실태를 확인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의 교육을 개선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정부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교육 체계에 생활기술과 시민교육을 반영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어린이 1,200만 명과  
약 25만 개 교실에  
학습물품 제공



긴급구호 상황에 있는  
어린이 880만 명에게  
교육 서비스 제공



54개 나라와 협력하여  
전통과 혁신의 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육 자료 개발



레크레이션 키트  
28,000개 제공



영유아 발달 키트  
17,000개 제공

### 아시아 어린이 교육

‘Schools for Asia’는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인도, 중국,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총 11개국 아시아 어린이를 위한 유니세프 교육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박양숙 여사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100억 원을 기부하면서 201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유니세프는 유아 발달 교육 센터를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사 훈련, 아동친화학교 지원,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아시아 어린이들이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자 어린이와 장애 어린이가 공평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부 정책도 지원합니다. 긴급 재난 시에는 교육 시설 및 자료를 지원하고, 재난을 대비한 교육 계획도 수립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017년 약 90만 달러를 포함해 2010년부터 약 1,500만 달러를 schools for Asia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 후원기업 및 단체와 함께하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시아 교육 지원 사업

## SM엔터테인먼트 어린이 통합 음악 교육



한류 문화를 이끌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는 다낭, 하노이, 콘툼 3개 지역 교육기관에 2016년부터 3년간 5억 원을 지원해 음악으로 베트남 어린이의 꿈을 키워주는 ‘Smile for U’ 캠페인을 펼칩니다. 2017년에는 연말 자선행사 ‘SM타운 갈라 2017, 채리티 나이트’ 등으로 기금을 모아 어린이 5,000여 명에게 악기를 제공해 교육하고 음악 교사도 양성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17년 8월 다낭과 콘툼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에는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와 소속 가수이자 배우인 최시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특별대표가 동행했습니다.

## BGF리테일 베트남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친화도서관



BGF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베트남 잘라이 성 지역 4개 도서관 리뉴얼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2017년 3월 BGF리테일 임직원 및 편의점 CU(씨유) 가맹점주는 베트남 현지를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아시아나항공 베트남 영유아 보육 지원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7월 베트남 호치민시 보육 지원을 위한 협약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체결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호치민시의 보육 시설을 개선하고, 보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합니다.

## 사랑의본부 동티모르, 몽골 교육 지원



‘사랑의본부’는 2012년 9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한 후 2017년까지 총 4,960,903,212 원을 아시아 어린이 교육 지원사업 ‘Schools for Asia’을 위해 후원했습니다. 사랑의본부 기금으로 2017년 동티모르 우라호우 지역에 유치원이 설립되고 초등학교에는 위생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랑의본부는 2017년 8월 6일부터 9일까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 교육 현장을 방문한 후,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 설립과 교육 정책 개선을 위해 14억 원을 후원하기로 2017년 9월 약정했습니다.





## 보호



© UNICEF/UN061999/ishwanathan

## 소중한 나를 지켜요!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가라테 수업에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스스로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인도 기리디 지역의 조혼율은 무려 60%나 됩니다.  
유니세프는 이 지역 65개 마을  
종교 지도자, 공무원 등과 협력해  
조혼 풍습 근절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여자 어린이 500여 명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라테 수업에 참여해  
자기 방어와 자존감에 대해 배웠습니다.

분쟁과 재해가 끊이지 않았던 2017년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분쟁과 재해뿐 아니라 폭력과 성 착취, 강요된 노동, 조혼과 할례 등 유해한 관습, 강제 징집은 어린이의 보호받을 권리를 앗아가는 주요 원인입니다.

유니세프는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의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린이의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아동노동과 폭력 근절, 조혼과 여성 할례 종식, 소년병 해방 등 어린이 보호에 힘썼습니다. 각 나라 정부가 어린이 보호 제도를 확립하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엔드 바이올런스(#ENDviolence)' 캠페인을 펼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입은 어린이를 도와줍니다. 또 정부기관, 아동 보호 비정부 기구, 교육기관들과 협업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린이들이 상처를 딛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58개 나라 어린이  
약 1,600만 명  
출생등록 지원



59개 나라  
성폭력 피해 어린이와  
여성 360만 명 지원



분쟁, 이주 등으로 부모와  
헤어진 40개 나라  
어린이 약 14만 명  
신분 확인과 등록 지원



조혼의 위험에 처한  
여자 어린이 200만 명에게  
교육 프로그램 지원



어린이 노동자  
760만 명 보호



분쟁과 이주로  
정신적 상처를 입은  
어린이 약 350만 명에게  
심리치료 및 교육,  
아동친화공간 제공



할례 피해 여자 어린이  
약 87만 명에게  
교육, 보건 및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16개 나라 소년병 1만 2천 명이  
가족과 사회로 돌아가도록 지원

###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글로벌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ENDviolence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의 글로벌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엔드 바이올런스'에 동참하여 전 세계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폭력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7년 11월부터 이 캠페인에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세계적인 보이 밴드 방탄소년단도 함께합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이 펼치는 사회 변화 캠페인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2년간 앨범 판매 수익금 일부와 캠페인 공식 굿즈 판매 수익금 전액 등으로 기금을 마련해 유니세프의 엔드 바이올런스 캠페인을 지원합니다.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 사회 통합



© UNICEF/UN067183/Vas

## 함께 배워요

팔다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배우며 같이 커가요.

유니세프는 장애 어린이가 양질의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세르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통합 교육 프로그램과 교통비, 보조 인력을 지원합니다.

3억 8,50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매우 심각한 빈곤 상태에서 삽니다. 교육과 영양, 보건, 식수와 위생, 보호, 거주지 등 여러 부문의 빈곤 때문에 소외를 겪는 어린이도 6억 8,900만 명에 달합니다. 비장애 어린이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사는 빈곤국 장애 어린이는 겨우 10% 내외입니다.

유니세프는 사회 통합을 위해 모든 어린이가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실현할 수 있게 돕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차별 받는 어린이를 지원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제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7년 유니세프는 대물림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각 나라가 어린이의 빈곤과 소외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도왔습니다. 장애 어린이도 어린이답게 배우고, 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각 국 정부가 통합 교육 프로그램, 현금 지원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도왔습니다.



58개 나라 어린이 빈곤 조사 및  
대응 방안 지원



응호 활동으로 어린이를 위한 공공 투자에 기여  
· 말라위 사회분야 공공지출 23% 증액  
· 파키스탄 지방정부 식수 위생 서비스 예산 수립 등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 3억 4,600만 명 현황 파악



어린이 약 1억 8천만 명에게 현금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각 나라 정부의 사회보호 체계 강화 지원



양골라,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장애아동의 보호 제도 강화



116개 나라 어린이가 지역과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국야구위원회-모리플러스 아동친화도시 어린이 후원

2017년 8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유니세프 액세서리 라이선시 모리플러스는 KBO 10개 구단별 고유 색상 끈과 엠블럼 팬던트를 엮어 만든 매듭 팔찌 '유쾌한 연결고리'를 판매해 수익금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관내 어린이 돕기 프로젝트(#No\_Child\_Left\_Behind)에 후원했습니다.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한국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어린이의 권리를 알리며,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입법과 정책 제언, 놀 권리 캠페인 등 어린이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섭니다.

##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정책, 행정 체계, 태도와 관점을 변화시켜 어린이의 권리를 증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7년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2,667,692명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8개 지자체 노력으로 혜택을 받은 아동 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지자체 48개 (2017년 12월 기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19개	추진 지자체	2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주시</li> <li>*서울 강서구</li> <li>*아산시</li> <li>*인천 서구</li> <li>*대전 유성구</li> <li>*세종특별시</li> <li>*수원시</li> <li>*광주 서구</li> <li>*서울 종로구</li> <li>*충주시</li> <li>*전주시</li> <li>*오산시</li> <li>*서울 강동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송파구</li> <li>서울 도봉구</li> <li>군산시</li> <li>부산 금정구</li> <li>완주군</li> <li>서울 성북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명시</li> <li>광양시</li> <li>광주 동구</li> <li>광주 북구</li> <li>광주광역시</li> <li>구미시</li> <li>김해시</li> <li>논산시</li> <li>당진시</li> <li>대구 중구</li> <li>보령시</li> <li>부산광역시</li> <li>부천시</li> <li>서울 강북구</li> <li>서울 관악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광진구</li> <li>서울 구로구</li> <li>서울 금천구</li> <li>서울 노원구</li> <li>서울 서대문구</li> <li>서울 성동구</li> <li>서울 중구</li> <li>서울특별시</li> <li>순천시</li> <li>시흥시</li> <li>옥천군</li> <li>음성군</li> <li>인천 동구</li> <li>화성시</li> </ul>

\* 2017년도 인증 지자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어린이는 어른과 동등한 시민이 되어 사회의 주체로 성장합니다. 어린이의 안녕은 건강한 도시, 민주 사회, 굿 거버넌스를 증명하는 궁극적 평가지표입니다.

<p>모든 아동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지역사회</p>  <p>아동권리 실현 위한 입법 근거 마련 지자체</p> <p>45개</p>	<p>지역사회 아동의 삶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핀 지역사회</p>  <p>아동친화도 조사 실시 지자체</p> <p>42개</p>	<p>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확보된 예산</p>  <p>2017년 기준, 예산서를 작성한 34개 지자체의 아동 관련 예산</p> <p>약 5조1,944억 원</p>
<p>자신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앞장서 참여하고,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아동</p>  <p>아동참여기구 소속 아동</p> <p>6,830명</p>	<p>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공무원</p>  <p>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 전담 공무원</p> <p>123명</p>	<p>성인과 동등한 존재로 아동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시민</p>  <p>2017년 기준,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 41개 지자체의 아동권리 교육 참석자</p> <p>114,119명</p>

**40개 지자체** 아동참여기구 신설 및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어린이 의견에 구하고, 문제 해결 과정 반영

**27개 지자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세하고 포괄적인 전략 개발

**41개 지자체** 아동의 의견 우선 고려, 아동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전담 기구구성

**22개 지자체** 지역의 법과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사전 진단

**34개 지자체**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예산 확보, 아동을 위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석

**48개 지자체** 아동 중심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한 통계와 정보 수집 및 분석

**41개 지자체**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모든 이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교육 실시

**25개 지자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독립 인 권기구 설립

##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어린이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국제아동인권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6개 지역(강원, 경상, 수도권, 전라, 제주, 충청)에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에는 강원·전라 지역 92명이 7~8월에 열린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아동권리 캠프에 참여한 후, 각 지역에서 모둠 별로 동영상 제작, 설문조사, 인터뷰, 거리 캠페인 등을 펼쳤습니다. 11월에는 아동권리협약 채택 28주년을 기념해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발표회도 열었습니다.

2015년 수도권과 경상권, 2016년 제주와 충청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중 희망자 33명은 2017년까지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3년간 모인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한국 보고서’에 담겨 2018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2017년 11월 8일에는 전국의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417명을 대표하여 4명이 ‘유니세프 국회 친구들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3년간 모인 의견을 정리하여 차별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맘껏 배우고 놀 수 있는 세상, 누구나 아동권리 교육을 받는 세상 등을 위한 정책제안문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중 17명은 ‘디지털 시대의 어린이(Children in a Digital Age)’ 주제 유니세프 2017년 세계아동현황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7) 발간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6월 18일에 진행한 워크숍에도 참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23개 나라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어린이들이 나눈 디지털 세상에 대한 경험과 의견은 2017 세계아동현황보고서에 담겼습니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은 2017년 12월 소년사법 관련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과제를 담은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를 발간했습니다.

2015년 12월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를 단장으로 발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은 2년간 한국의 소년사법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소년사법의 모든 과정에서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이행과제 40개를 제시했습니다.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어린이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가 가정과 학교, 사회로 돌아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제안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년사법 당사자인 어린이와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제안서와 소년사법 관련 담당기관별 우선 과제 중심의 제안 개요도 함께 발간했습니다.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 12명은 소년사법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어린이친화공간



### 차별 없는 구호 활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유니세프 어린이지구촌체험관’ 개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9월 2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사옥 1층에 ‘유니세프 어린이지구촌체험관’을 열었습니다. 유니세프 어린이지구촌체험관은 어린이들이 직접 다른 나라 친구들의 어려움을 체험해보며, 지구촌 문제와 어린이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교육, 식수, 보건, 영양, 보호 등 10개 코너로 구성된 체험관에서는 구호물품과 가상현실 영상, 디지털 워크북을 활용해 유니세프의 다양한 활동을 생생하게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관람 문의 및 신청 [www.unicef.or.kr/village](http://www.unicef.or.kr/village)

###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유니세프 맘껏 놀이터’ 개장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맘껏 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유니세프 맘껏 놀이터’가 7월 4일,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맘껏 놀이터’는 ‘어린이는 맘껏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만든 자유놀이 공간입니다. 언덕과 나무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 속에 만들어진 ‘맘껏 놀이터’는 어린이가 주인공 놀이터, 놀이 기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며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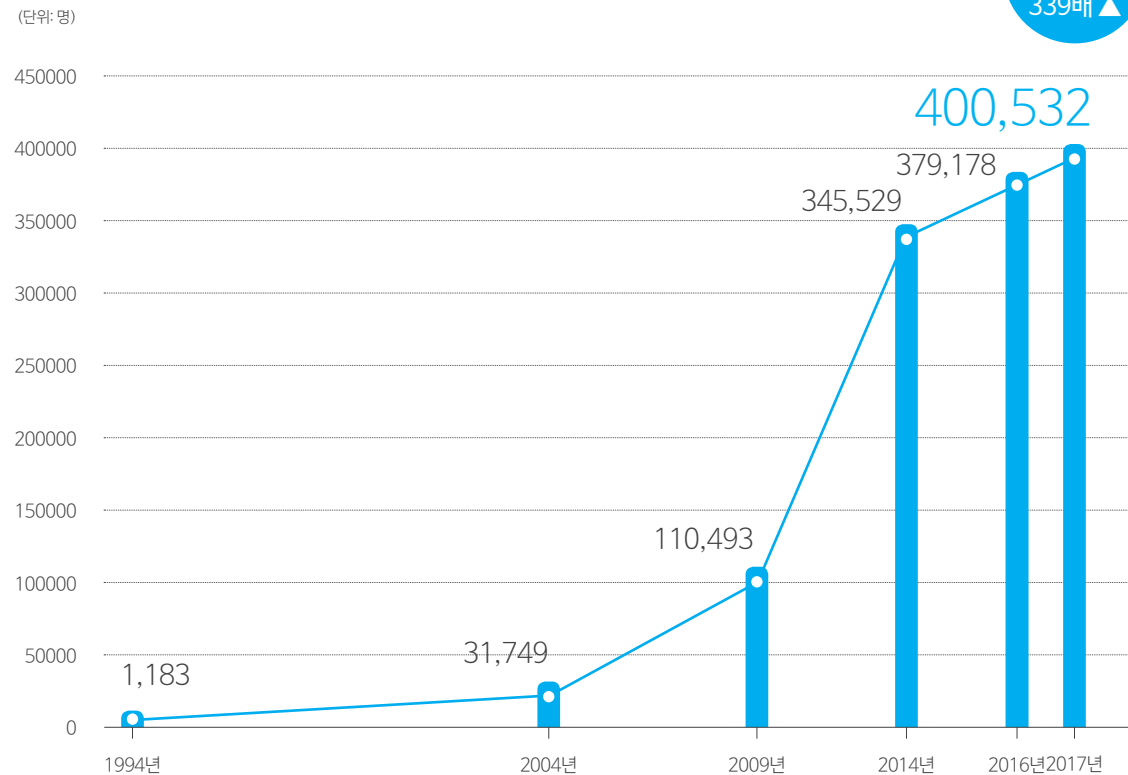


# 우리는 유니세프 가족 후원자

우리는 유니세프 가족!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듭니다.

## 201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자 수

2017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자는  
약 40만 명으로 94년도 설립 이후 339배 늘었습니다.



2017년에도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한결같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신규 후원자 모집

어린이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약속 캠페인  
For [#every child], promise

[배고픔이 익숙해진 어린이]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어린이]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약속 캠페인에 참여하신 후원자들은  
지구촌 어린이를 위한 약속을 하며 정기 후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해 후원을 시작하신  
분들께는 유니세프 약속 반지가  
전달되었습니다.



##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



2017년 연말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전쟁으로 가족의 품을 떠나야만 했던 11세 소년 '바이안'의 삶을 담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영상을 활용해 백화점 등에서 난민 어린이의 삶을 알리고 정기 후원을 독려했습니다. 내전을 피해 고무보트를 타고 탈출해 헤어진 가족을 기다리는 바이안의 일상을 가상현실 영상으로 보며 멀게만 생각했던 난민 어린이의 삶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한 시민들은 고통에 공감하며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 2017년 후원자 참여 프로그램

### 후원자가 직접 만든 축제 - 유자(유니세프 후원자) 페스티벌

7월 1일 성동구 언더스탠드 애비뉴에서 유니세프 후원자 1,000여 명, 시민 약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자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유니세프 후원자 운영단 50여 명이 나만의 초상화 그리기, 팔찌 만들기 등 직접 40여 개의 체험 및 판매 부스를 기획하고 준비해 운영했습니다. 재능 기부자들의 공연과 교육으로 기부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페스티벌 당일 현장에서 모인 기금 약 780만 원은 난민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 후원자가 보고 느낀 캄보디아의 변화 - 제2회 후원자 현장 방문

제2회 유니세프 후원자 스토리 공모전에서 수상한 후원자 5명은 9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간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지원하는 캄보디아 사업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약 5시간, 다시 작은 보트를 타고 1시간가량 이동해서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평생 처음 화장실을 사용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된 아첸 지역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함께한 후원자들은 '유니세프는 우리 마음에도 희망을 심어주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 후원자 초청 나눔행사

### 제3회 유니세프 송년 나눔의 밤

후원 10주년을 맞은 유니세프 정기후원자 등 1,000여 명을 모시고 12월 28일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관람하는 '제3회 유니세프 송년 나눔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 제3회 황병기 해설 유니세프 전통음악 연주회

11월 2일, 본회 황병기 특별대표와 함께 국립극장에서 '제3회 황병기 해설 유니세프 전통음악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공연에는 유니세프 5년 이상 후원자들이 참석해 황병기 특별대표가 작곡한 '자시', '영목' 등을 즐겼습니다.



2018년 1월 작고한 황병기 특별대표는 1991년 유니세프 문화예술인클럽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1996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음악 부문 특별대표로 임명되어 자선 공연과 해설 등으로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 전국 후원자와 함께한 유니세프 토크 콘서트 - 이동우의 '마음으로 보는 세상'

서울, 제주, 전주,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유니세프 토크콘서트를 열어 후원자들과 재즈가수 이동우가 따뜻한 나눔에 대한 영화 '시소'를 관람한 후 나눔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함께 울고 감동하며 유니세프 후원자들의 관심과 나눔의 실천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친선대사와 특별대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구촌 어린이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문화예술인 등을 친선대사와 특별대표로 임명하여 함께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친선대사와 특별대표는 각자 분야에서 유니세프를 홍보하고 지원하며, 유니세프 사업 현장 방문, 유니세프 캠페인 참여 등으로 지구촌 어린이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친선대사 (4)	안성기 (1993. 5. ~ )	장사익 (2015. 3. ~ )	
	황병기 (1996. 10. ~ 2018. 1.)	김혜수 (2017. 9. ~ / 2012. 8. ~ 2017. 9. 특별대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특별대표 (7)	원빈 (2007. 9. ~ )	이보영 (2012. 1. ~ )	최시원 (2015. 11. ~ )
	김래원 (2007. 10. ~ )	공유 (2013. 11. ~ )	지성 (2017. 12. ~ )
	리처드 용재 오닐 (2008. 12. ~ )		

안성기 친선대사



1993년부터 유니세프와 함께하고 있는 안성기 친선대사는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어린이들이 각 분야의 역할을 체험해 보는 ‘Children’s Takeover’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안성기 친선대사는 11월 1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유니세프 물류센터를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전 세계에 보낼 구호물품을 직접 포장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함께했습니다.

유니세프 본부는 안성기 친선대사와 덴마크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치료식, 살충 처리 모기장, 의약품 등 다양한 구호물품을 준비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11월 20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KBS특파원도 현장을 동행 취재하여 KBS 1TV 뉴스에 3차례 보도했습니다.

배우 김혜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친선대사 임명

9월 27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배우 김혜수를 친선대사로 임명했습니다. 김혜수 친선대사는 1997년 ‘후원의 밤’ 행사 참여로 유니세프와 첫 인연을 맺은 이후 2012년 8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특별대표로 임명되어 유니세프 활동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2017년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난민 어린이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세르비아, 이탈리아, 그리스를 방문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 어린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배우 지성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특별대표 임명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2월 1일 배우 지성을 특별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배우 지성은 2013년 아프리카에 이즈 고아 돕기 기금 전달 행사에서 유니세프와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유니세프 디지털 캠페인 ‘내 곁에 있어줘’에 참여해 폭력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지성 특별대표는 임명식에서 ‘어릴 적 꿈이 배우였다면 지금 꿈은 배우로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사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유니세프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 2017 주요 후원 기업 및 단체

### 올해의 파트너 - BGF 리테일

BGF리테일

BGF 리테일은 2011년부터 전국 곳곳에 위치한 편의점 CU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과 가맹점주, BGF 등이 함께 참여하는 'BGF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펼쳐 7년간 약 7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2017년 7월에는 베트남 아동친화도서관 4개소 리뉴얼 프로젝트를 위한 협약도 체결하여 지구촌 어린이 돕기에 앞장섰습니다. BGF는 2017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올해의 파트너로 선정되어, 12월 28일 열린 '유니세프 송년 나눔의 밤' 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시아 교육 후원 P.31



ASIANA AIRLINES

사랑의본부

영양 후원 P.27



아동폭력 근절 후원 P.33



식수 · 위생 후원 P.25



사회통합 후원 P.35



긴급구호 후원 P.19



## 사랑의 동전 모으기 작은 동전으로 큰 희망을

Change for Good®

Change for Good®은 여행객들이 쓰고 남은 잔돈을 항공기내에서 유니세프 기금으로 기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는 1994년부터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여 2017년까지 130여 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현재는 편의점과 은행, 박물관 등으로 확대되어 모금에 기여합니다.

ASIANA AIRLINES

7-ELEVEN

CU

LOTTE Super

Incheon Airport

신한은행

HYUNDAI

모두투어

eSpor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KEB 하나은행

I ♥ DALKI

## 유니세프 상품 제작 파트너

솜씨카드

유니세프 감사카드의 한국 독점 라이선스 파트너입니다. 2014년 10월에 3년 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10월, 계약을 3년 연장하여 유니세프 감사카드를 만들어 한국에서 판매합니다.



모리

모리는 유니세프 공식 액세서리 라이선스 파트너입니다. 2016년 유니세프 본부와 한국 내 액세서리 라이선스 파트너십 체결 후 다양한 유니세프 팔찌를 판매합니다. 유니세프 팔찌는 모리 웹사이트(moreplus.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우리는 유니세프 가족 자원봉사자

지구촌 어린이를 위해 귀한 시간과 재능을 기부해주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자원봉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챔프’와 ‘캠페이너스’라는 이름으로  
홍보부스 운영과 행사 등을 지원해주신 대학생 약 140명,  
약 20년간 외국 동전을 분류해 주신 일반인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어린이를 위해 유니세프와 함께

정기  
후원

**매월 정한 금액으로 꾸준히**  
약정된 금액을 매월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일시  
후원

**기적을 만드는 첫걸음**  
자유롭게 선택해 1회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선물

**어린이에게 전하는 희망**  
후원물품을 선택해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기념  
기부

**특별한 날을 더 뜻깊게**  
생일, 출생, 결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유산  
기부

**유산으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동전  
기부

**작은 마음이 큰 힘이 되어**  
다양한 곳에 비치된 유니세프  
모금함에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기업  
사회 공헌

**아름다운 사회 환원**  
기업기부, 임직원 기부, 공익연계  
마케팅 등으로 기업이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병원

**모든 어린이가 건강한 세상을 위해**  
병원 사업자 명의로 매월  
약정된 금액을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단 한 명의 어린이도 빠짐없이

어느 곳에 살던 그 누구든

어린이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찬란한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어린이도 빠짐없이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유니세프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빈곤과 질병, 착취와 폭력 속에 방치된 어린이를 위해

유니세프가 가장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이의 곁을 지켜주는 것.

단 한 명의 어린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유니세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